

# 불교 문화재는 남북을 잇는 다리

“현재 북한주민은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심지어 군인들이 민가에서 식량을 약탈하는 범죄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 달 4월 12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 기자회견에서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의 말이다.

1990년 북한의 공식 통계자료인〈문화공본연감〉 등에 따르면 북한 지역에는 300여 스님과 1만 불자가 있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주민들은 공산주의 체제의 한계에 식량난까지 봉착하면서 종교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북한의

김일성도 “나는 우리 일꾼들에게 앞으로 신계사를 복구하고 거기에 불교 박물관을 꾸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불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고 말해 불교 문화재 복원에 관심을 표한 바 있다.

종교는 정치 경제면과 달리 남북한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임에는 분명하다. 불교 문화재를 통한 동질성 회복이 남북통일의 물꼬가 되기를 기원 하면서 북한의 불교 문화재를 소개한다.

영통사는 1027년 창건된 사찰로 개성

장대 있다. 화려한 장식 기법으로 고려 말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높이 120cm의 반가상으로 화질이 모두 벗겨져 유백색의 대리석이 그대로 들어나 있다. 옷 주름선이 아주 섬세하고 율동적으로 표현돼 아름답다. 목에서 무릎아래까지 늘어뜨린 영락과 홍식이 화려해 조각된 조상된 예가 많지 않은 대리석불상이다.

금강산 아미타삼존불은 금강산 4대 사찰의 하나인 표훈사 남쪽 2km지점에서 발견됐다. 15~17cm 높이로 결구부좌 자세이다. 여래상은 아미타불로 두광과 신광을 윤곽선으로 나타낸 광배를 지니는 등 고려

후기의 소형 불상과 많이 닮았지만 관세음보살이 쓰고 있는 오염관은 नेपाल의 불상 모습과 닮아 독특한 양식을 보여준다.

정릉사는 평양시 역포구역 용산리에 위치한 북한이 복원한 대표적인 사찰이다. 정릉사는 고려 427년 장수왕이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하면서 동명왕릉을 옮기고, 그 명복을 빌기 위해서 세운 사찰이다. 서금당인 극락전에는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관음보살상과 지장보살상상이 협시보살로 봉안돼 있다.

참조=<북한의 사찰> 대한불교진흥원권 천진영기자



개성시 영통사정경



안국사 9층석탑

취약계층은 기아에 허덕이고 남북한의 관계는 연평도, 천안함 사건 등으로 심각한 경색 상태이다.

불교는 민족의 전통문화라는 뿌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공통분모이다. 남북한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도 상호간 불교 문화재는 교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다.

북한의 불교에 대한 인식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1970년대에는 불교는 “노예적인 굴종사상과 무지향주의를 설교한다”고 정의하면서 불교 및 종교 일체를 배척해왔다. 2000년 이후에는 팔만대장경을 “분량이 방대하고 내용이 풍부한 불교전서로서 고려의 목판인쇄술과 물질경제의 높은 발전변모를 보여주는 인류문화의 귀중한 재보이다”라고 설명해 불교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용호동 오관산 기슭에 위치한다. 고려 왕실의 여러 왕들이 자주 참배했던 대찰이다. 대각국사 의천은 이곳에서 출가해 천태종을 열었다. 16세기 무렵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2002년 조선경제협력위원회와 천태종이 함께 복원사업을 시작해 2005년 완성했다. 오늘날의 영통사는 6만여 평의 부지에 29동의 전각이 복원됐고, 대각국사비를 비롯해 각종 문화재도 복구됐다.

안국사는 평안남도 평성시 봉학동 봉린산 기슭에 위치해 있는 국보문화유물 제 34호이다. (평안남도자신부안국사사적비)에 따르면 503년에 법석 현구가 20여 년에 걸쳐 지었다고 한다. 현재 경내에는 대웅보전, 태평루, 요사, 주필대와 9층 석탑만 남아 있다.

관음사 대리석 관음보살상은 개성시 산성리에서 출토돼 현재는 개성 박물관에 소



관음사 대리석 관음보살상



금강산 아미타삼존불



정릉사 극락전 내부

## “신계사 등달기 계속할겁니다”

동국대 정각원 교법사 제정 스님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신계사 평화의 등달기 운동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불교의 성자인 금강산에 연등을 밝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민족 화해와 평화입니다.”

제정 스님은 2004~2007년 북한에 상주하면서 신계사 복원 불사 과정을 지켜본 첫 남북 종교인으로 유명하다. 신계사 터에 등등을 달기 시작한 스님은 10년 넘게 등달기 운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제정 스님은 “북한은 지금 식량난이 심각하다. 굶어 죽을 판에 삶의 참된 길을 걷게 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주민들에게 포교는 ‘종교 믿는다고 살림이 좀 나아 지셨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어떤 종교에도 관심을 기울 수가 없다”며 북한의 현주소를 설명했다.

현재 북한의 절에는 문화재청 공무원 같은 사찰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있을 뿐이다. 스님이 한두 분 계시기도 하지만 그들도 수행자는 아니다. 절 자체도 100개도 안 된다.

조계종과 조선불교연맹이 2000년대부터 신계사 등달기 운동을 펼쳐왔지만 가장 크게 행사를 할 때도 남북 인사가

300여 명이 참석하면 북한 관계자들은 300여 명이 참석할뿐이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종교 아편처럼 중독성 있는 나쁜 것으로 규정해 사찰을 문화재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애쓰기 때문”이라고 북한의 종교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남북 관계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이후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 됐다. 그 이후에도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과의 관계는 급격히 경색된 상태이다.

제정 스님은 “단순히 등을 다는 것이 무슨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까 싶지만 북에 등달기 운동은 종교를 떠나 남북의 공통분모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민주분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신계사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의 허가가 남지지는 아직 미지수다. 2010년에도 낙성 3주년을 기념해서 신계사 복원에 참여했던 100여 명이 방북을 신청했지만 통일부에서는 당일치기로 7명 만을 허가했다.

제정 스님은 “예전에는 신계사 입구부터 앞마당까지 등을 달아 근처에 북한주민들이 사는 온정리 마을에서도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는 연등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오직 절터 안에만 달 수 있어 아쉽다”며 “부처님의 연등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를 이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 북한 사찰음식은 진정한 수행식

사찰음식 전문가 정산 스님

2007년 방북을 계기로 〈북한 사찰음식〉을 펴낸 정산 스님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북한의 사찰음식야말로 진정한 수행식”이라고 말했다.

정산 스님은 1961년 범어사에서 행자생활을 시작으로 황해도 해주 고 향인 명허 스님에게 해방 전 북한 사찰음식을 배웠다.

스님은 본래 수행음식은 오색찬란하지 않다. 승복이 먹물로 물들이듯이 색, 양념, 향 모두 자연의 것이 기본이다. 요즘엔 일본식을 흉내 내는 등 기분을 지키지 않는 사찰음식이 많다며 우려했다.

북한 사찰음식의 주재료는 옥수수, 메밀, 감자다. 쉽게 강원도와 비슷하다

고 생각하면 된다. 봉축음식도 따로 있지 않다. 단지, 4~5월에 주로 먹던 죽이나 냉이를 감자와 메밀에 섞어 넣는 음식이 있을 뿐이다.

정산 스님은 북한 사찰의 전통 음식으로 감자 누룽떡(사진)을 소개했다. 감자(연근, 두부) 누룽떡은 스님들이 삭발하고 묵욕하던 날 보양식으로 먹던 음식이다. 찹쌀에 구하기 쉬운 감자 등을 넣고 누룽지처럼 구운 것이다.



佛紀 2555年 辛卯年 Buddha's birthday |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 영원한 중생의 도량

#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 주지 경담

### 전통의 향기 산사의 하루

-----

선암사 템플스테이 (수행형, 체험형, 휴식형)  
선암사 불교대학 (매주 일요일 10시 강의)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 중무소 061)754-5247, 5947 / 팩스 061)754-5043 / 템플스테이 061)754-6250

www.seonamsa.net / www.seonamtemple.com

## “일이 잘 안 풀리시죠?”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성적은 안 오른다구요?”  
“평소엔 잘 하다가 시험만 보면 꼭 실수가 나오나요?”  
“이유 없이 자꾸 아프시다구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아지지 않는다구요?”  
“사업을 벌이는 족족 망한다구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사주는 아주 좋는데 왜 그러는지 답답하시다구요?”

그렇다면 **이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틀림없이 이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잘못 바꾸면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돼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제 한자 중심의 작명, 수리화 중심의 작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름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미성 이름 연구원에서는 세계최초로 30여개 성명학을 집대성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작명을 합니다. “이름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름 속에 희망, 꿈, 성공, 건강, 재물, 실패, 좌절, 절망, 부도, 파산, 불행 등 모든 운명적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미성 이름 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 3차 빌딩 409호

성명학 교실 제자모집  
〈상담·문의전화〉  
**1600-0063**  
현재 불교 TV 광고 중 (10:30, 14:00, 18:00, 23:00)

이름의 중요성에 대한  
〈**무료 강연회**〉  
매주 토요일 11시 ~ 13시